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 2026-03-18

유동성 폭발과 6,000선의 융기

코스피 5% 급등의 기저에 깔린
글로벌 매크로 동향과 내일의 투자 전략

Generated by Market Intelligence Unit
Security Level: Standard

국내 증시



KOSPI 5,925.03 (+5.04%)

사상 최대 3조 원 금융투자 매수 유입, 5900선 단숨에 탈환.

미국 및 글로벌



S&P 500 0.00% (관망세)

마이크론 실적 및 FOMC 대기 속 위험 선호 심리 확산.

FICC 동향



WTI \$94.80 | 미 10년물 4.206%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및 달러 약세(원화 강세) 맞물림.

주간 마일스톤



FOMC 금리결정 (3/19)

연준 매파 기조 유지 여부와 금리 동결(3.75%) 전망이 핵심 변수.

코스피 5% 폭등: '삼성전자'가 견인한 5900선 탈환

한 달 만에 돌아온 대형 반도체주 랠리가 상승 모멘텀을 주도하며,
단기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6000선 회복 가능성을 점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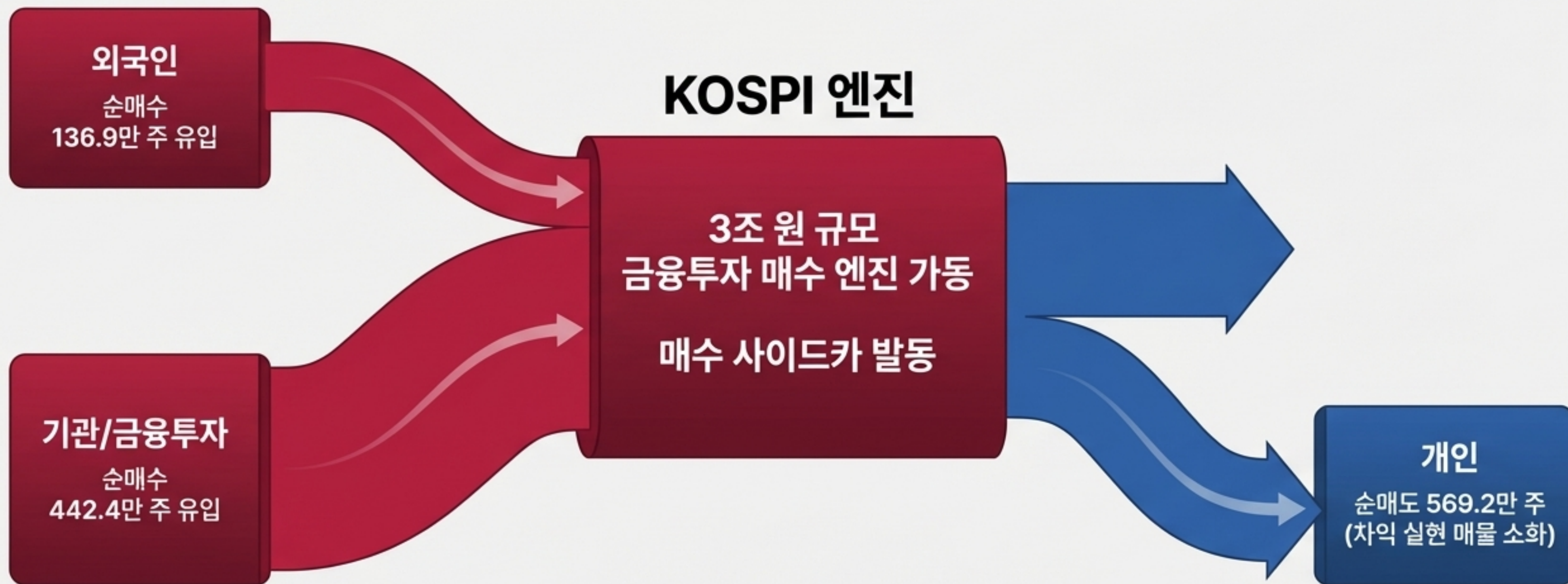
1	SK하이닉스 1,056,000원 (+8.87%) 시총 752.6조	2	삼성전자 208,500원 (+7.53%) 시총 1234.2조
---	---	---	--

KOSPI 5,925.03 (+284.55pt, +5.04%)
KOSDAQ 1,164.38 (+27.44pt, +2.41%)



수급 폭발 메커니즘: 사상 최대 3조 원의 쌍끌이 매수

개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완벽하게 흡수하며,
전고점 돌파를 위한 강력한 수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전방위적 위험 선호: 섹터별 수익률 히트맵

반도체(전기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건설업과 화학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소외 섹터로 온기가 확산되며 전형적인 강세장 초입의 순환매 양상을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폭풍 전야의 관망세 속 아시아 연동 상승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 실적과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아시아와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유가 하락에 힘입어 뚜렷한 상승 궤도를 그렸습니다.

미국 (관망세 - Wait & See)

S&P 500:	6,716.09 (+0.00%)
NASDAQ:	22,374.18 (+0.00%)
DOW:	46,946.41 (+0.00%)
부동산(+7.42%), 에너지(+2.00%) 반등. 나스닥 장중 0.5% 상승.	

유럽 (평화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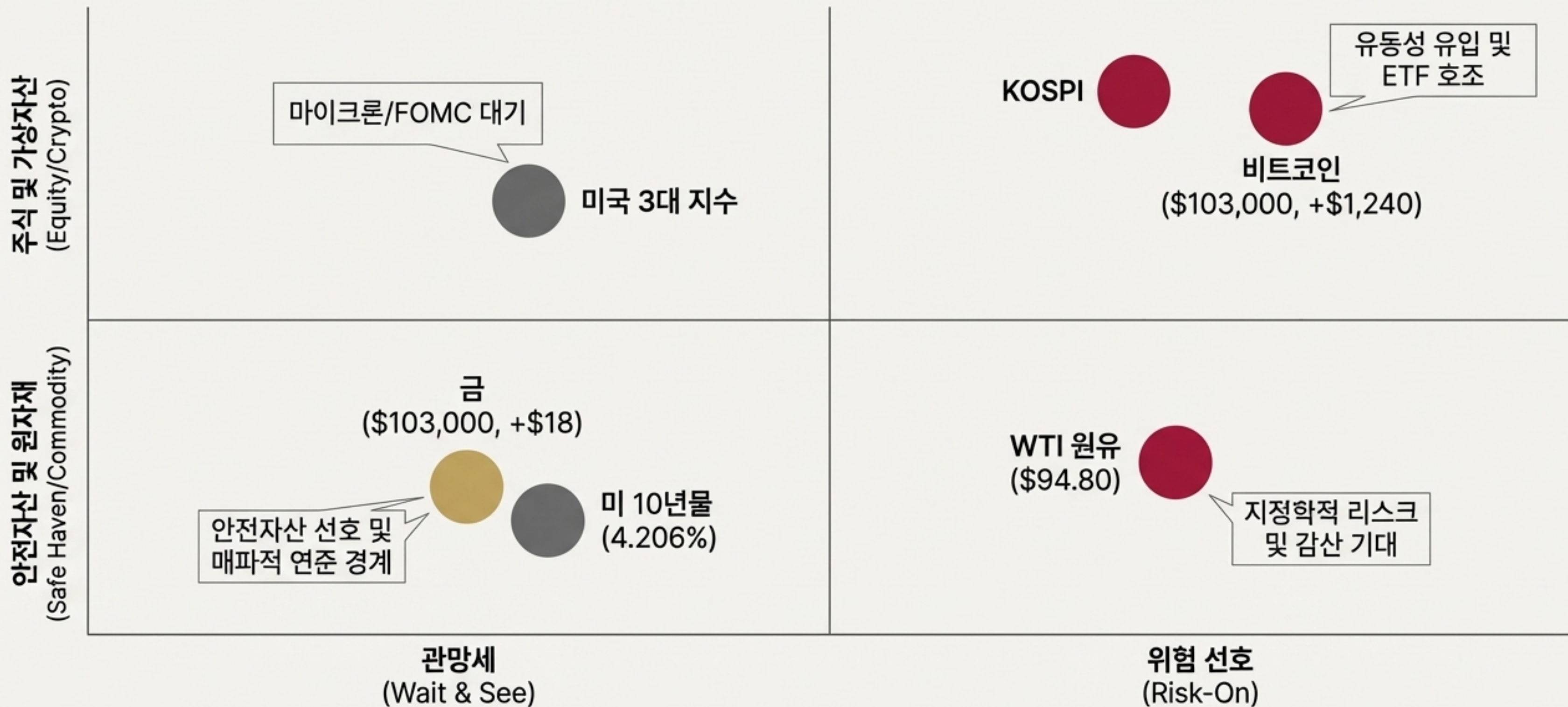
DAX:	+0.82%
STOXX 50:	+0.62%
우크라 평화협상 기대 및 방산주 강세	

아시아 (랠리 동조화 - Risk On)

상하이종합:	+0.45%
선전성분:	+0.62%
닛케이:	+0.32% (엔화 약세 수혜)

글로벌 자산 심리 매트릭스: 엇갈린 자금의 이동 경로

주식 시장 내에서도 국가별 온도 차가 극명하며, 원유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위험 자산과 금·국채 등 안전 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복합적인 매크로 환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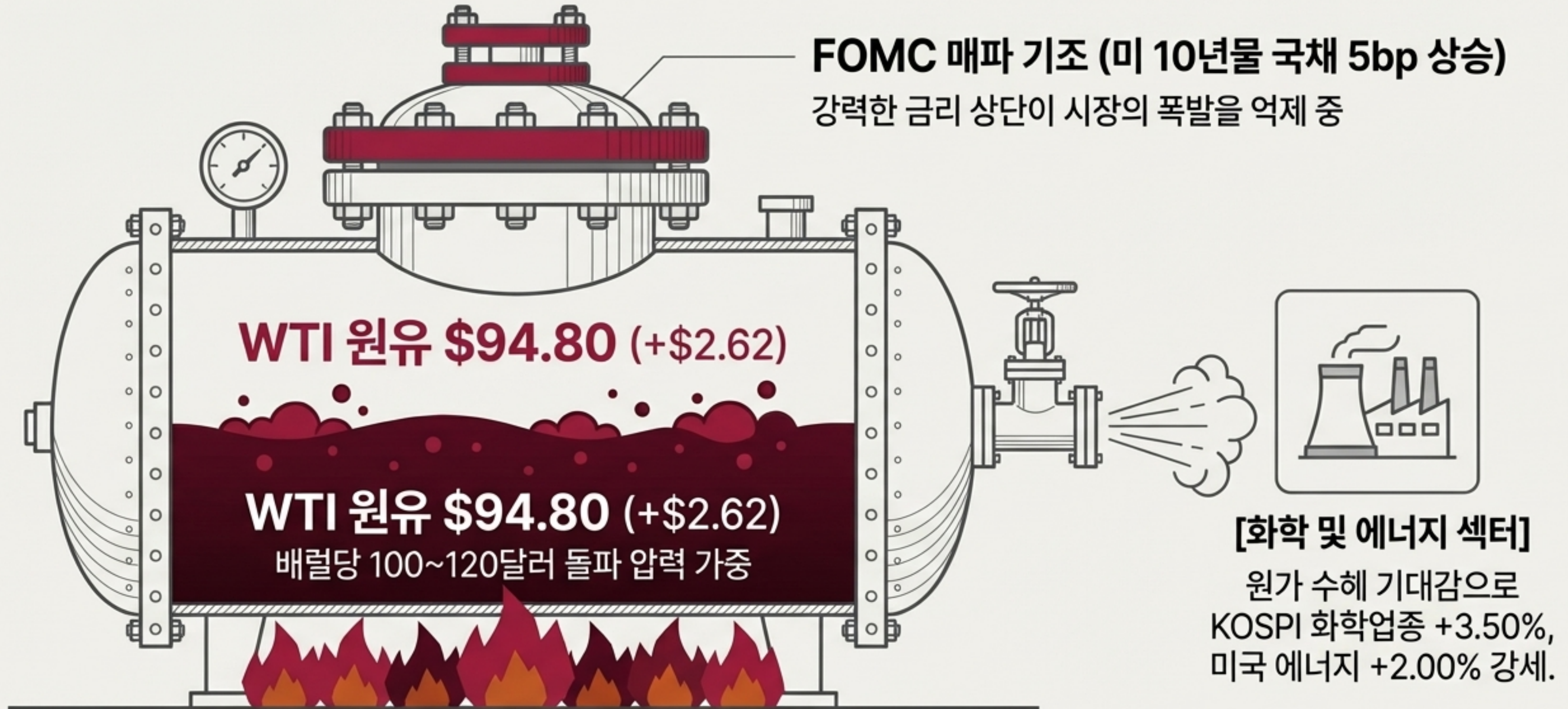


FICC 대시보드: 기저에 흐르는 거시 경제의 압력

유로화 강세로 촉발된 달러 약세가 원화 가치를 방어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의 매크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매크로 압력솥 모델: 유가 상승과 금리의 힘겨루기



이란/호르무즈 해협 긴장 & OPEC 감산 연장 기대

마일스톤 레이더: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핵심 트리거

모든 글로벌 자금이 19일 새벽 연준의 입(파월 기자회견)과 점도표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향후 인하 경로'에 대한 코멘트가 변동성을 촉발할 것입니다.

[00:30] 미국 대통령 연설
(지정학/정책 리스크 점검)

[21:30]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PPI)
(예측 0.3%) - 인플레이 척도

3/18
(오늘)

[03:00] FOMC 금리결정
(예측 3.75%, 동결 유력)
& 경제전망/성명서

[12:00]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예측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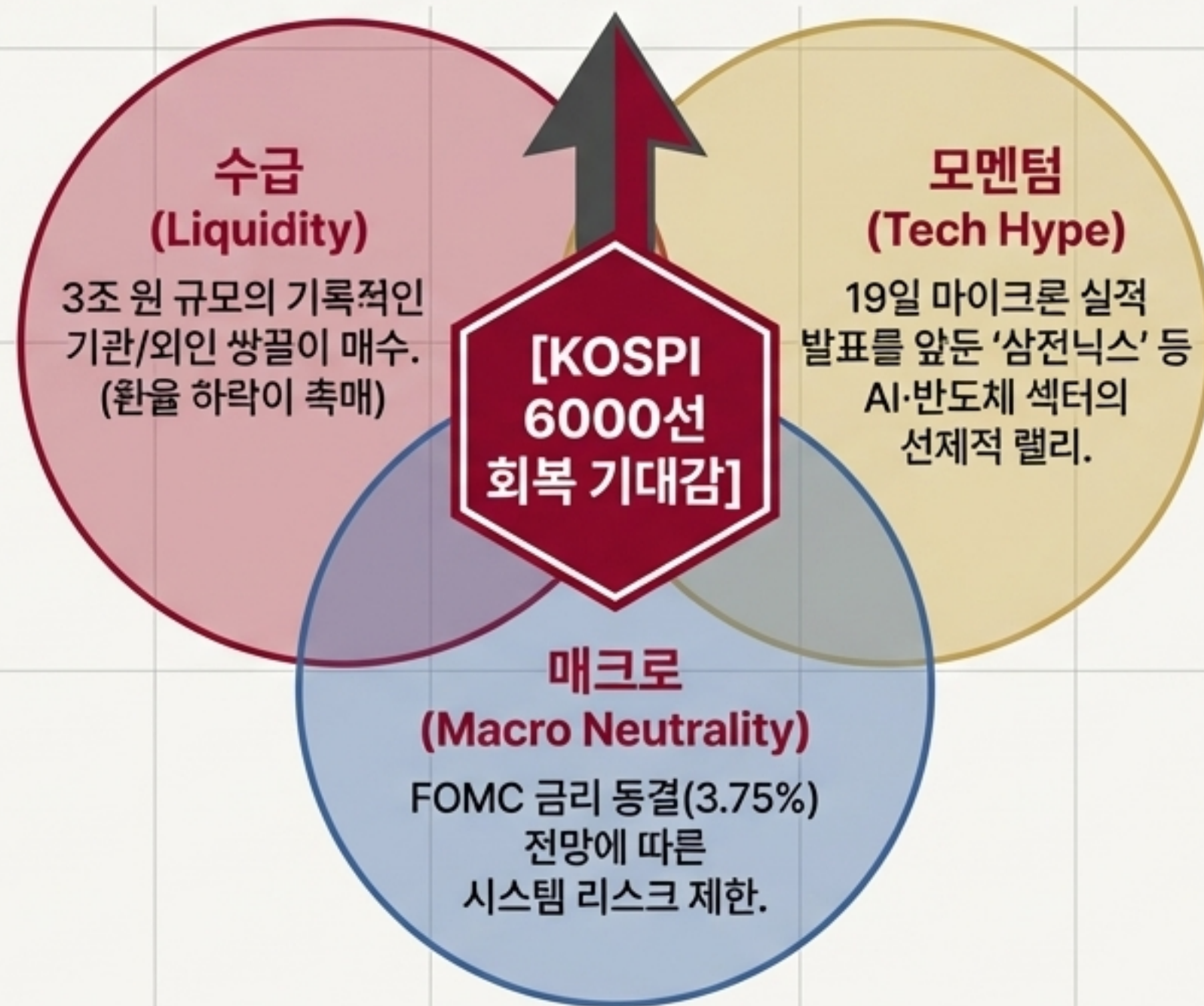
3/19
(내일)

[22:45] 미국 제조업/서비스 PMI
(경기 선행 지표 점검)

3/24
(다음 주 화요일)

유동성 스프링보드: 6,000선 도약을 위한 3대 동인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입, 반도체 실적 기대감, 그리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KOSPI를 새로운 궤도로 쏘아 올릴 스프링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및 내일의 전략



[Target Achieved]
코스피 5900선 탈환 및
사상 최대 매수 유입.



[Pending] FOMC 성명서 및
마이크론 실적 확인.



[Alert] 유가 상승 및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성.

1. 반도체/대형주 보유 (Hold & Ride)

단기 매수 신호가 켜진 상태. 외인 순매수가
주도하는 전고점 돌파 랠리 탑승.

2. 화학/에너지 섹터 비중 확대 (Tactical Buy)

유가 상승(WTI \$94.80) 및 원가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인플레이션 헤지 트레이딩.

3. FOMC 변동성 대비 (Risk Management)

19일 새벽 연준 매파 기조 강화 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므로, 현금 비중의 전략적 조절 필요.